

“경쟁 상대는 ‘나’... 아쉬움 남지 않게 무한 연습해요”

2024 꿈을 쏘다 <1>시립발레단 강민지 수석발레리나

2024년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예술가들이 많다. 공연,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주목받는 지역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한다.

“일생에 한 번뿐인 한국발레협회 ‘신인발레리나상’을 수상하게 돼 뜻깊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춤추며 지내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가며 격려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8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발레단 연습실(B홀)에서 만난 강민지(29) 수석발레리나는 그렇게 자신을 낮췄다.

그는 한 해 동안 시립발레단의 ‘DIVINE’, ‘지젤’ 등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며 관객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무대 위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모습과는 달리 다소 수줍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먼저 지난 해 화두에 올랐던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에 대해 물었다. 강 씨는 주재만 안무가가 작업한 ‘누가 채워주려나’를 준비했던 과정을 떠올리며 “자유를 주제로 한 1장에서는 처연함과 숭고라는 대비되는 모습을 동시에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컨템포러리 발레는 클래식과 달리 주된 서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안무를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DIVINE’·‘지젤’ 등 주연으로 활동 한국발레협회 신인발레리나상 수상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채찍질’

무용수들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수개월을 준비해 무대에 오르는데 공연 시간은 채 2시간 남짓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실전에서 일말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무한 연습’하는 편이다”고 했다. 인터뷰 당일에도 그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연습실에 나와 안무를 점검하는 열정을 보였다.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물었다. 작년 선보였던 세계적인 낭만발레 ‘지젤’이 그 답으로 돌아왔다.

강 씨는 공연 당시 1막 하이라이트 ‘매드센’ 속 ‘광인’을 연기했는데, 대사가 없는 무언극인 탓에 옷이 몸의 언어로만 우울, 비탄 등을 전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무용수와 관객들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발레단 연습실(B홀)에서 만난 강민지 수석 발레리나.



공연 ‘GISELLE’ 리허설 당시 모습.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랐다. 실제 삶과 예술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한 가지를 오래 해온 사람들의 경쟁은 늘 치열한 법이지만, 항상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나 자신과 경쟁하려 했다”며 연습실 거울을 쳐다봤다.

발레리나들이 매일 마주하는 대형 전신거울이 머리카락 끝까지 몸의 굴곡을 고스란히 비쳤다. 거울 속 모습은 어떠한 편집도 없이 인간 본연의 있는 그대로를 직관적으로 보여줬다. 여지껏 스스로를 바라보며 수없이 한계를 마주하고 극복했을 무언의 힘 같은 게 느껴졌다.

기자는 이날 강 씨에게 기본기부터 연결 동작을 배우보기도 했다. 기본 발동작인 1,2,4,5번 자세는 발목을 꺾어 두 발을 수평으로 놓아야만 했는데, 많

은 훈련과 유연성이 필요해 보였다.

강 씨는 이어 발레의 꽃이라 불리는 ‘아라베스크’를 시연했다. 한 쪽 발을 들어올린 채 고고한 백조 같은 자세를 펼쳤고, 곧바로 연결 동작인 ‘스트레치’를 연계하며 연꽃 형상을 만들어 냈다. 기술을 처음 시도해본 기자는 어설픔게나마 따라했지만 ‘정확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작년엔 춤 추기에 바빠서 올해는 그래도 저 자신을 좀 돌보면서 춤 추고 싶어요. 그러면서 좋은 공연에 대한 욕심은 꺼지지 않네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발레리나 강민지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사진·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ACC·국립현대무용단, 지역 우수 안무가 발굴 전국에 소개한다

21일까지 ‘지역상생 프로젝트’

4개 권역별 선정 9~10월 초연

‘스우파’, ‘스컬피’를 비롯해 댄스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이와 맞물려 문화부는 지난 27일 저작권 보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위해, 음악방송에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겠다는 방안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지역의 우수한 안무가를 전국에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과 국립현대무용단(예술감독 김성용)이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오는 21일까지 공동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국립현대무

용단이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선보인다는 것.

총 4개 권역인 광주·전라,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경남, 세종·충청권에서 권역별 1인의 안무가를 선정해 이들의 공모작을 국립현대무용단이 오는 9~10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초연한다. 이어 각 권역별 극장(ACC, 대구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ACC 교류홍보과 임승현 주무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무가들의 작품을 발굴해 광주는 물론 대구, 부산, 세종 등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사업이다”며 “우수한 지역 안무가들이 국립현대무용단과 만나 예술적 역량을 발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일정과 지원방법은 국립현대무용단 홈페이지 또는 ACC 누리집 참조.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현대무용단의 공연 장면.

<국립현대무용단 제공>

제20회 5·18문학상 공모... 12일~3월 11일

5월 문학의 가능성과 확장, 문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5·18문학상 공모가 올해도 실시된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2024년 제20회 5·18문학상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작가회의와 계간 ‘문학들’이 공동 주최하며 본상과 신인상으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상(상금 2000만원)은 시, 소설, 아동문학, 평론이며 저서(지난

2022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 이내 발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본상 후보작은 한국작가회의 전국지부와 계간 ‘문학들’이 선정한 추천위원이 추천한 작품과 단행본 출판사가 추천한 작품 중 선정하며 별도 구성된 심사위가 후보작들 중 수상작을 선정한다.

미등단 작가 대상의 신인상 공모 분야는 시, 소설, 아동문학이다. 시(5면 이상 10면 이내), 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아동문학(동화, 동시 중 선택) 가운데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1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인상 부문별 수상자는 시(300만원), 소설(500만원), 아동문학(300만원) 상금과 계간 ‘문학들’에 작품이 수록된다. 아동문학 작품은 계간지 ‘어린이와 문학’에도 게재된다.

시상식은 올해 5·18 행사기간 열릴 예정이다. 공동주최자인 ‘문학들’ 송광룡 대표는 “올해는 5·18문학상 공모를 실시한 지 20회가 되는 해라 더욱 뜻 깊다”며 “5·18의 가능성과 확장, 발전 등을 더 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응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작의 길 가는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 신년 콘서트...창작활동 독려·친목 교류



신년 콘서트에 참석한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함께 문학 활동을 하며 창작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 서로를 ‘도반’이라 부르며 문학의 발을 일구어가는 이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소장 이성자·창작연구소) 회원들이 주인공.

서구 광천동에 자리한 창작연구소는 문학을 사랑하고 창작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이들이 자주 찾는 ‘아지트’와 같은 곳이다. 주로 동화, 동시 등 아동문학을 하는 이들이 배우고 문학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찾는다.

창작연구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콘서트를 열었다.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초등학교 모드락에서 열린 모임은 시무식을 겸해 개최됐으며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서트는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회원간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처음 문을 연 창작연구소는 지금까지 신춘문예와 각종 문학상 수상 등 모두 60명의 등단자가 나왔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가족’. 흔히 가족은 일반

적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서로 짐을 나누고 아픔을 이해하며 같은 길을 가는 사이로 점차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성자 대표는 “넓은 의미의 가족이란 모든 생명이 끈으로 연결돼 건강하고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며 사는 관계를 일컫는다”며 “창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도반들도 하나의 가족이라 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에는 ‘뿌리상’, ‘열매상’, ‘새싹상’, ‘특별상’에 대한 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책을 발간하거나 문학상을 수상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상은 윤미경, 양정숙, 조오복, 정영숙, 김명희, 박지윤, 장유신, 유백순, 주미선, 박형숙, 고현경, 이연숙 등 모두 15명이 수상했다.

초대 회장 심명자의 한 줄 메시지를 비롯해 노명숙 회원의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단상’이 펼쳐졌다. 김명희 동화작가는 ‘내가 만난 귀신고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